

사상 첫 3600선 넘어선 코스피… 상승세 이어가나



반도체주 강세속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주목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등도 촉각

주식 황금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미국 9월 CPI(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 주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전장보다 61.39p(1.73%) 상승한 3,610.60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48.90p(1.38%) 오른 3,598.11로 출발해 장 초반 사상 처음 3600선을 돌파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으

나 장중 다시 오름폭을 키웠다. 한때 3,617.86까지 올라 장중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974조6464억원으로 직전 거래일(2일) 대비 52조42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21.0원 오른 1,421.0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20일(1,421.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이

조 622억원을 순매수하며 증시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019억원, 5943억원 순매도하며 차이 실현에 나섰다.

주식 연휴 기간 뉴욕 증시는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지속과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AI 산업 확장 발언 등을 소화하며 오르내렸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AI 칩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면 1.8% 상승했다.

이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6.07%)가 9만원대로 올라섰으며, SK하이닉스(8.22%)도 42만원선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사상 첫 3600선을 넘어선 코스피의 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14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다.

아울러 15일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중국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쑥부쟁이 신품종 '루비체' 개발

전남농기원, 지역 산업화 발판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기능성 쑥부쟁이 신품종 '루비체(Rubichae)'를 개발하고 품종보호 출원을 완료했다. 이번 성과는 건강기능성 원료의 국산화와 지역 특산물 산업화 기반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쑥부쟁이는 항산화 물질인 루틴을 함유해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 재래종은 생산성과 기능성 성분 함량이 낮아 산업화와 표준화를 위한 신품종 개발이 시급했다.

'루비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품종으로, 10a(1000㎡)당 생체수량이 1.6t, 건물중량이 213kg에 달해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38% 높다. 특히 루틴 함량이 2.8㎎/g으로 기존보다 1.5배 증가했으며, 잎이 크고 줄기가 붉은색을 띠며 병해에 강하고 생육 속도도 빠른 것이 특징이다.

현재 쑥부쟁이는 건나물, 분말 형태로 비빔밥 키트·머핀·쿠키·차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 건강 개선제나 아토피 완화용 기능성 제 품종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약 2ha 규모의 기능성 원료 재배단지, 구례군은 1ha 규모의 가공 원료 재배지를 조성해 산업화 기반 강화에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루비체' 개발을 계기로 전남지역 쑥부쟁이 생산 농가의 기능성 원료 표준화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 작물의 산업화를 촉진해 농가 소득 증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광주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에서 '광주 AI반도체 융합 얼라이언스(KICK-OFF)'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 AI반도체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

팹리스 기업 등 산·학·연·관 60개 기관 참여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광주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에서 '광주 AI반도체 융합 얼라이언스(KICK-OFF)'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를 비롯해 자동차·로봇·디지털헬스 등 반도체 수요기업,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CA(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산·학·연·관 핵심 주체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 보조를 맞춰 광주가 AI반도

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설계(팹리스)부터 제 품화, 수요처까지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기술개발에서 시장 진출까지 연결되는 유기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올해 말까지 △AI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수요기업 간 1대1 매칭 지원 △공동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기술·사업화 애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

하게 된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얼라이언스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아이디어가 기술로, 기술이 시장으로 이어지는 '가치 창출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가 글로벌 AI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인공지능 전시회 'AI TECH+'도 함께 소개됐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향후 전시회를 통해 개발 기술과 제품을 국내외 바이어에게 선보이며 실질적인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임직원 제재공시 급증

34건 1년새 580% ↑…내부통제 부실 여전

광주·전남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제재공시가 1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공시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내역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내부통제 수준과 조직 신뢰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및 제재공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제재공시는 35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 207건보다 7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경기 57건, 대구 56건, 인

천 순이었다.

광주·전남의 제재공시는 2023년 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580%(29건)나 늘었으며, 제재 대상자는 인원 7명과 직원 27명으로 확인됐다.

사적 금융거래나 대출 한도 초과 등 위법·부당행위가 잇따르며 지역금고의 내부통제 부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면서 "각종 부동산 PF와 부당대출 문제를 너머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 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7억1700만원

제119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9, 16, 19, 24, 2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7억170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45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635명으로 12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593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8만2376명이다.

연합뉴스

광주·서구·국내·09·0005호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경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